

데스크 시각

기차역서 울리는 피아노 소리



김미은 문화1부장

서는 또 다른 '인부'를 볼 수 있었다. 이번엔 안전모를 받침대 삼아 책을 읽고 있는, 백발에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의 모습이였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몰입하는지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돌아오는 길, 다시 만난 할아버지는 굴착기가 돌아가는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책 읽는 공사장 인부

이번 여행 중 들른 도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건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였다. 암스테르담 기차역에서는 흥겨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많은 이들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뉘설도르프의 유명한 서점 '마이 어선 드로스데' 3층에 놓인 피아노 앞에 선 한 아시아인 청년이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하고 있었다. 암스테르담 국립도서관 1층에 자리한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금발의 젊은이는 프로그 실력이었는데, 무엇보다 연주 내내 기쁨에 가득 찬 환호한 표정으로 음악을 감상하던 나이 지긋한 남성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엄마를 따라온 꼬마가 연주라피고 퐁퐁거리던 모습이 얼마나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행복한 풍경들을 보며 이들에게 '음악

과 독서'가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그게 바로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아 많이 부러웠다. 얼마 전 시집 '나의 바다'를 펴내 화제가 된 무안 출신 '팔순 할매' 김옥례 여사는 '누에 고치가 실 뽀아내듯' 시를 쓰는 게 생활이었다. 평생 써 온 다리미, 밤마다 우는 귀뚜라미, '탑스럽고 복스러웠다'가 지금은 힘줄만 울룩불룩 가늘어져 버린' 고마운 손이 모두 시의 소재였고, '아들 못 둔 쓰린 마음'과 '나 몰래 떠난 청춘', '새대 시절' 등 순탄치만은 않았던 80인생을 토해 내는 데 시간만 한 게 없었다. 자주 아픈데다 현 박스를 좁는 힘든 삶 속에서도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꾀 '할매'는 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 느낀 심정을 이렇게 써 내려가기도 했다. "깜짝 놀랐어요. 전부 아주 애송이 방실방실한 새덕들이고 팔순의 노파 저 혼자란 말씀이지요. 살다가 처음 주눅이 들었지요. 잠깐 생각하다 예라 모르겠다 용기를 내자."('목포 공공도서관' 중에서) 먹고 살기 팍팍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문화 예술은 나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임부라 공연장과 갤러리를 찾아가는 건 어느 정도 품이 드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의식주처럼 자연스레 몸에 배는 '생활 속 예술'

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 개인의 관심과 함께 '내가 직접 즐기는 예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는 자치단체와 문화 예술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생활 속 예술' 확산돼야

참, 광주에도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앞에 놓인 '달려라 피아노 65호'다. 언젠가 전당에 놀러갔을 때 할머니 등 온 가족이 아이가 연주하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으며 흐뭇하게 지켜보던 모습이 떠오른다. '달려라 피아노' 프로젝트는 '즐거운 소동이 되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 준다.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속스러워하지 말고 한 번쯤 연주해 보는 건 어떨까. 고민에 쌓여 있던 누군가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이 들려주는 그 아름다운 음악에 귀 기울이며 작은 위로를 얻을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당연시된 것을 의문시하라



김창균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려움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보다 크게 작용하여,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처럼 방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속담이 있고, '열 번 짝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나 'Better late than never'(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편이 낫다)처럼 행동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도 있다.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는 이야기도 있다. '3년 고개'라는 민담을 보면, 장에 갔다 돌아오던 할아버지는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산다는 고개에서 그만 넘어지고 만다. 할아버지는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버리고, 가족들은 할아버지 격정에 전정공공이다. 이때 손자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이다. "뭘 그리 걱정하세요? 그 고개에 다시 가서 10번 넘어지면 30년을 더 사실 수 있는데요." 손자의 말 한마디에, 넘어졌다는 절망 상황은 더 넘어지면 좋다는 긍정 상황으로 바뀐다. 이를 다른 이야기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에서는 어느 날 가난한 부부에게 요정이 내려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영직결

에 아내는 커다란 소시지를 달라고 했고, 정말 첫 번째 소원이 이뤄지자 화가 난 남편은 그 소시지가 아내 코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마지막 소원은 "코에 붙은 소시지를 떼어 주세요"였다. 그런데 세 번째 소원을 "앞으로 세 가지 소원을 더 들어주세요"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나 결단력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교훈을 남긴 영웅도 있다. 프리기아(Phrygia)의 왕 고르디아스는 자신의 전차에 복잡한 매듭을 매달아 두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후로 수많은 사람이 매듭을 풀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신탁을 전해 듣자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고, 예언대로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었다. 과거 산업 사회의 패러다임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대한 물결이 이미 일상 곳곳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신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혁명적 사회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패러다임에 순응하는 결과를 열

린 토플러는 이렇게 비유했다. 아프리카 어느 강 유역에 수천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원시 부족이 있었다. 어느 날 상류에 백인들이 나타나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부족은 아이들에게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카누 만드는 법, 고기 잡는 법,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다 댐이 완성되자 그 부족과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들의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방적 압기, 정해진 정답을 찾는 풀이 교육이 인공 지능의 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어느 MBA 과정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를 최고의 아이디어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비대 겸용 장수기'를 관창은 사업 아이디어로 만들어 가는 과정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정후 후 역발상을 통해 최선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당연시된 것을 의문시하고, 발상 전환을 통해 새로운 찾아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김군순 전남대학교 쏘셜메이커 대표

난 것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이 등록금을 안정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에 입학한 뒤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는 깨져만 갔다.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던 대학은 '취업학원' 또는 '공무원학원'이라는 이름이 더 적당해 보였다. 취업률을 자랑하는 학교와 전공과목이나 학교생활에 집중하기보다 취업준비와 공무원시험 준비에 더 열정적인 학생들, 그리고 졸업논문이 아니라 토익을 점수를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는 졸업요건을 보고 드는 생각이었다. 대학생들은 공강 시간에 잔디밭에 앉아 노는 것보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토익점수를 이야기하고, 자격증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저녁엔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모두가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나중에 뭐하고 살 거냐'는 질문에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으로 살고 싶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경영학과부터 화학과, 철학과 등 모두 다른 전공이었던

지만 원하는 직업은 같았다. 대학에 막 입학한 새내기 때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후배는 휴학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친구도 자퇴한 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엇이 그들이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신문기사에 나온 한 학생은 등록금과 빚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또 한 학생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무엇이 그들의 꿈과 삶을 빼앗아갔을까? 대한민국 사회는 대학생들처럼 젊은이들이 꿈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낮에는 학교공부, 취업공부 등 휴식도 없이 공부를, 저녁에는 고된 아르바이트로 아슬아슬 등록금을 마련한다. 수천 만원의 빚을 떠안고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고 빚도 갚아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이 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그나마 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이었다. 그래서 모두 꿈을 접고 공무원시험 준비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6470원. 1시간 일해야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 낫은 액수다.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이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

기 위해 한 몸 겨우 누울 수 있는 좁디좁은 고시원에서 살면서 끼니마저 거르기도 일수다.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도 넘쳐난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라 그나마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마음을 졸여야 한다. 이런 미래를 보며 대학생들은 꿈을 포기한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마음 졸일 필요가 없는 공무원의 삶만 바라보게 된다. 청년실업,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대학생들은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상 항상 빚더미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1만 원, 당연한 요구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흔히들 "요즘 대학생들이 눈이 높아져서 문제"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결코 눈이 높아진 게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을 주는 곳에 취업하고 싶은 것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삶이 보장된다면, 대학생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꿈을 찾아서 살아가려 하지 않을까? 나도 나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꿈꾸며 살아가고 싶다.

社 說

도심 공원 개발 그래도 '생명의 숲'은 살려야

광주 도심에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며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민간 개발이 가능해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민간이 나서 공원을 개발할 경우 일정 부분은 아파트 부지 등으로 개발해 수익성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 접수 결과 광주 20개를 비롯 전국에서 5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중부 지원이 많아 민간공원 특례사업엔 모두 95개 의향서가 접수된 셈이다. 문제는 광주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열성 현상으로 여름철 기온도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녹지들이 아파트 숲으로 바뀐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특히 이번 개발 대상 도시공원들은 모두 도심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마루공원은 최대 상권인 삼무신도심과 인접해 있고, 봉산공원은 영산강, 수랑공원은

황룡강 등 수변지역에 위치해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확실시되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광주의 지난해 여름 기온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광주 시가 '1도 낮추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 비율이 67%로 전국 최고인 점을 감안해 아파트 건립 위주의 개발 계획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한다. 도심지 인근 녹지 공간이 상당 부분 없어진다면 유시차 도심지가 심각한 재해 상황에 부딪칠 수 있고 무엇보다 차량 매연 등을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원 개발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부라도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 행편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긴 하다. 하지만 제안서 심사 위주의 개발사업자 선정보다는 환경 보존·공익성을 고려한 사업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마루공원은 최대 상권인 삼무신도심과 인접해 있고, 봉산공원은 영산강, 수랑공원은

정치권 '내로남불' 공방 속 민생만 멎는다

최근 정문회 정국에서 여야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공방전이 한창이다. 상대방이 여당과 야당 시절 했던 행태를 상기시키면서 현 정국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경과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비협조적이었다며 눈을 흘기고 있는 반면 민주당 측은 당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다며 찬성 여론이 높은 현재의 상황과는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에 협치는 실종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여 가기 위한 개혁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일자리 추경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6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대치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과거의 궤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당은 정문회 정국에서 여권의 발목을 잡는데 열중하면서 수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론도 마찬가지다. 민심의 지지에 취해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여소야대라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당은 어정쩡한 모습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여 가기 위해서는 '협치의 방식'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 방법은 정치적으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길 밖에 없다. 민심은 여야 어느 진영에서 시대적 과제를 위해 낮은 자세로 복무하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이제 여야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근시안적 대치보다는 시대를 이끌어 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진영은 결국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無 等 鼓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는 1964년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된 말인데, 런던 도심이 새로운 중산층의 유입으로 살아나면서 노동자 계층이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설명한 것이다. 국내에선 2000년대 들어 서울 흥대 주변과 서촌, 삼정동, 대학로 등지에서 예술가들과 소상공인들이 자바로 밀려 쫓겨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색 있

젠트리피케이션

는 거리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상권에 자본가들이 몰려들고 이들이 상가 임대료를 올리면서 주민들과 상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방에선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도심 재생에 나서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원인인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데 힘쓰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장흥 토요시장일 것이다. 장흥군이 2005년 장흥읍 5일장 자리에 토요시장을 개장한 후 내놓은 소고기·표고버섯·키조개 등 '장흥 삼합'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상가 임대료가 2배까지 치솟자

원래 자리를 지키던 상인들은 모두 떠날 수밖에 없었다. 광주에선 대인동 예술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전례를 남겼다. 2008년 광주비엔날레 '북덕당 프로젝트'로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시장이 활기를 띠었지만 사람들이 몰려다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렸고 예술가들은 짐을 쌀 수밖에 없었다. 한때 40여 곳이던 예술 공간은 이제 10여 곳만 남았다. 요즘에는 1913송정역시장의 청년 상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4월에 개장한 이후 KTX 승객 증가로 관광객들이 몰려다 상가 임대료가 최고 10배가량 치솟았고 상가 주인과 임차인과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문화전당 효과로 최근 가장 뜨는 동명동과 장동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진행됐다. 학원들이 읍시점과 카페에 밀려 사라졌고 상가 임대료는 3년 새 네 배가치 올랐다. 도심이 살아나는 것은 좋지만 프랜차이즈에 밀려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익을 그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